HCI Korea 2023_스페셜 세션
“메타버스 HCI의 미래를 위한 청년 토론회”

❙ 스페셜 세션명 : 메타버스 HCI의 미래를 위한 청년 토론회

(장소: 하이원리조트 학술대회장 / 일시: 2월1일 13:20~14:40)

좌장: 안성희,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부교수

❙ 1부(13:20~13:50) 주제발표

주제발표1 : 이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
“실가상 융합 메타버스 개념과 정부 R&D 추진방향”

주제발표2 : 방준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 / UST 부교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각: UX와 상호운용성”

❙ 2부(13:50~14:40) ‘메타버스 HCI’의 미래를 위한 도전적 발상

토론 사회 : 방준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 / UST 부교수
김성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책임연구원

토론참여자 : 스페셜 세션 사전등록자 및 현장등록자(선착순)

토론 예상 주제 :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와 편견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메타버스 HCI가 다루어야 할 새로운 연구 주제들은 무엇인가? .
메타버스 UX는 무엇이며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HCI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외 토론자가 제안하거나 질문하는 자유로운 주제들

❙ 스페셜 세션의 취지와 기획 배경

취지 : ‘메타버스 HCI’에 대해 대학(원)생 및 청년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여 그 미래를 예측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HCI 미래의 방향성을 함께 설계해 보고자 메타버스미래포럼(의장: 박종일 한양대학교 교수)에서는 IITP 와 함께 새로운 형식의 참여적 방식의 스페셜 세션을 마련하였다.

기획 배경 : 현재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Metaverse’관련 기술과 서비스들은 향후 기술, 문화, 산업 경제 등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소 논란의 대상이다. 인간 중심의 융합 기술인 메타버스의 기술적 측면의 주제 발표들을 함께 담아 보면서 메타버스가 나아가야 할 국가 R&D의 방향 설정을 함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참여신청 : ahnsunghee9@gmail.com / https://forms.gle/rQhMcTe7SSxXcmX27

※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를 위해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입문자도 환영
※ 토론 참석(번호 추첨) 및 참여(우수 아이디어 선정)를 통해 상품 수여 예정

http://conference.hcikorea.org/hcik2023/programs/total_programs.asp